

Benzene, 구매지연 25달러 급락!

FOB Korea 420-430달러 형성 ... EPCA 회의 개최로 거래활동 둔화

Benzene 가격은 10월3일 FOB Korea 톤당 420-430달러로 25달러 급락했다.

한국 수출가격은 금요일까지 FOB Korea 톤당 10달러 상승한 반면, 전반적인 아시아 시장은 10월 구매지연 및 11월 가격의 Backwardation 현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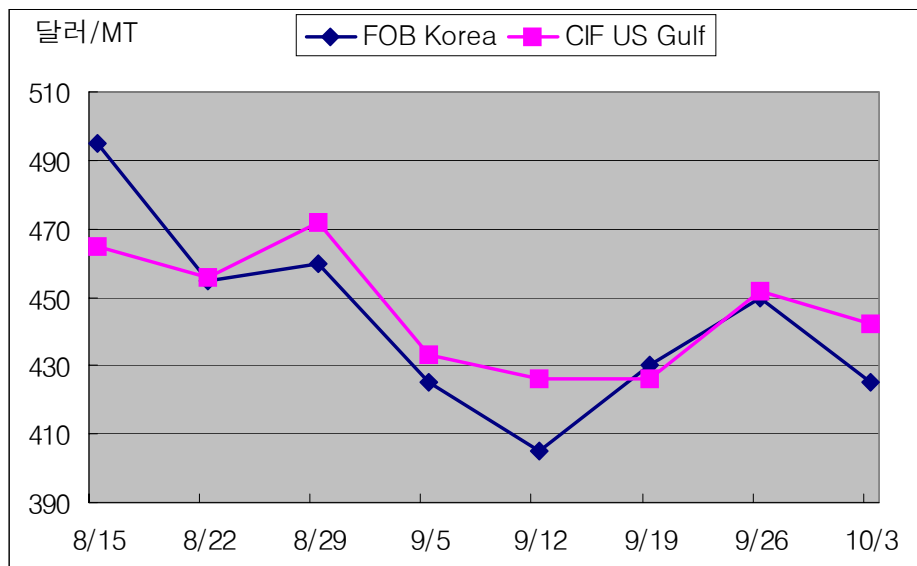
참여기업들은 10월 수요약세로 볼 때 10월 하순 매입(Long Position) 영향이 11월 초순 거래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11월 수급 밸런스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또 지난주 EPCA 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메이저 참여기업들의 시장 참여가 저조해 거래활동이 극히 둔화됐다.

월요일부터 공급기업들이 10달러 정도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2개 공급기업은 10월 하순 거래물량을 FOB Korea 톤당 440달러에 공급한 반면, 한 수요기업은 11월 초순 구매가격으로 430-435달러를 요구했다.

이후 공급가격이 FOB Korea 톤당 435달러까지 하락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화요일에 10월 하순 거래물량 3000톤이 415달러에 거래됐으며 최종수요기업에게 CFR Taiwan 톤당 435달러에 재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Benzene 가격추이



한편, 미국의 벤젠 가격은 10월3일 CIF US Gulf 파운드당 127.00-128.00센트로 톤당 평균 387달러를 기록해 10달러 하락했으며 10월 계약가격은 갤런당 151.00센트로 9월 대비 7.00센트 상승했다.

<Chemical Journal 2003/10/09>